♣ 學會消息 ♣

○ 헬무트 코잉敎授 來韓

독일의 저명한 法史學者 헬무트 코잉(Helmut Coing)교수가 1982년 4월 12~19일 고려대학교의 초청으로 방한하였다.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利益法學과 英國英利主義, (Interessenjurisprudenz und englisher Utilitarianismus)과 「獨逸民法의 成立過程」(Erfahrungen einer bürgerlich rechtlichen Kodifikation in Deutschland)이란 강연을 하였고, 대한민국 學術院을 방문하였다. 또 그의 著書 Epochen der Rechtsgeschichte in Deutschland가 本學會 會員인 崔鍾庫, 鄭鍾休 교수에 의해 「獨逸法制史」(博英社, 1982)란 이름으로 번역 출판되어 韓國法史學會와의 인연을 깊게 하였다.

○ 쇼오博士 滯韓

미국 하버드大學 韓國學硏究所 硏究員으로 있던 윌리엄 쇼오(William Shaw) 박사가 풀브라이트 交換計劃으로 1년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과 同大學院에서 韓國法制史와 東洋法制史를 강의하다가 지난 6월말에 돌아갔다. 韓國法制史를 전공하고 있는 쇼오박사는 滯韓中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에서 「朝鮮初期 性理學者들의 法律觀」의 발표를 하였고, 그의 박사학위 논문 Legal Norms in a Coufucian State (Berkerley, 1982)가 출판되어 한국 法史學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돌아가서도 韓國法史學會와의 관계가 계속될 것을 기원한다.

○ 田鳳德 會長 叙勳

本學會 會長 田鳳德박사는 지난 12월 10일 人權옹호기간을 기하여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훈받았다. 「朝鮮日報」(12월 11일字)의 記事를 인용하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田鳳德변호사는 51년 변호사를 개업한 이래, 31년 동안 서민대중의 인권옹호에 진력해 왔다.

특히 자유당시절 방위군사건, 尹吉重사건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의 변호를 맡아 명변론을 편것으로 유명하다.

63년 인권연보에 「한국 고유의 인권사상」이란 제목으로 우리 형사법규상의 인권옹호장치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68년에는 「암행어사제도 연구」로 서울大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는바, 이 연구는 인권탄압에 우는백성, 이들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의 장점을 발굴함으로써 인권신장연구에 크게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76년부터는 적십자활동에도 관여, 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보건사업, 청소년사업등을 전개해 왔다. 매년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무의무탁소년 2백 50여명을 청소년복지회관에 수용,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토록 했고 이밖에 언청이 1천5백여명의 무료수술, 6백 50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탁아사업전개, 81년도 난민, 화전민, 수재민 5천 8백여가구 구호사업 전개등이 주요 활동내용이다.

72년 한국법사학회를 창설, 한국의 법제사연구에 중추역할을 했고, 78년부터 81년까지 한국법학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80년에는 「한국변호사사의 편찬및 간행위원장으로 연혁부분을 집필하여 우리나라 변호사제도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고 제5공화국 헌법개정때는 심의위 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 鄭 鍾勗박사 逝去

刑法學者로서 刑法史에 관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시면서 西獨 프라이부르그의 「막스 플랑크 外國刑法및 國際刑法硏究所」(Max-Planck-Institut fiä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의 연구원으로 활동해오시던 鄭 鍾勗 박사께서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프라이부르그 自宅에서 持病인 암으로 逝去하였다. 故 鄭 鍾勗박사는 1933년 6월 16일生으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졸업하고 1958년 西獨 본(Bonu)대학에 유학하여 한스 벨첼(Hans Welzel) 교수 밑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본大學 法哲學 및 刑法硏究所 助手로 활동하였다. 1968년 4월에 귀국하여 釜山大學校 助敎授를 거쳐 1969년 3월에 中央大學校 副敎授, 1968년 9월부터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및 司法大學院에서 강의하기도 하였다. 다시 西獨으로 건너가 보쿰(Bochum)大學의 韓國學科에서 韓國法을 가르치다가 프라이부르그의 막스 플랑크刑法硏究所로 옮겨 오늘에 이른 것이다. 박사는 특히 日本, 韓國, 中國의 學界와 독일法學界를 연결시키는 橋梁的 역할을 담당해왔다. 故人은 獨逸系 未亡人과 슬하에 一男二女를 두고 있으며, 法史學관계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Zur Geschichte der Kodifikation des Strafrechts in Ostasien, Zeitschrift fű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d. 84, 1972, S, 1088-1119

② Die Beziehug zwischen dem deut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 in Festschrift fur Hans Welzel zum 70. Geburtstag, Beriln 1974. S. 277-288. 그리고 「韓獨法學」 創刊號, 1979再錄

③ Traditionelles und modernes Strafrecht in Korea, Zeitschrift fű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d. 88, H3, 1976.

○ 玄 勝鍾박사 「로마法」 改筆版

成均館大學校 總長職을 사임하시고 다시 高麗大學校 講壇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學問에 전념하시는 玄 勝鍾박사께서 1954년에 내셨다가 1960년에 改訂版을 내신 「로마法」(一潮閣, 1982)을 이번에 완전 改筆하여 내셨다. 그 서문에서, "이 책을 내는 것은 변두리로 밀려나면서도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로마法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法學教育에서 이 이상 천대를 받지않아야겠다는 심정에서이며, 나아가서는 로마法이 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으면 하는 가느다란 소망에서이다. 로마法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긴 한숨을 면하게 하였으면 하는 욕심에서이다" 고 하셨다. 실로 한국에 있어서 로마法學의 발전을 위하여 法史學界에 대한 큰 警鍾으로 알고, 이 책이 계기가 되어 硏究人口의 증가가 있기를 기원한다.

○ 「韓末法令集」발간

本學會에서 亞細亞文化社와 제휴하여 발간하는 「韓國近代法制史科叢書」 刊行本 출판으로 韓末法令集 「法規類編」과 「法規續編」이 총 9권으로 발간되었다. 同法令集은 韓國近代史의 연구에 기본적인 자료로서 法史學界는 물론 一般史學界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 아이케마이어敎授 出版

서독 튀빙겐(Tubingen)大學의 韓國學敎授 아이케마이어(Dieter Eikemeier) 교수가 Documents from Changjwari : A Further Appraach to the Aualysis of Korean Villages (Otto Harrassowitz, Wiesbaden 1980)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이 저서는 1975년 보쿰大學에서 통과된 그의 敎授資格論文(Habilitationsschrift)으로서 全羅南道 莞島 長佐里의 洞約과 鄕規를 채집하여 法史學的. 人類學的으로 분석한 것이다.(書評 : 崔鍾庫, 「法學」제 23권 4호, 1982) 法學을 공부하고 韓國學을 전공하여 독일에서 최초로 韓國學 正敎授가 된 아이케마이어박사는 한국法史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 학자이다. 참고로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燕岩 朴趾源의 政治思想」 (Elemente im politischen Denken des Yonam Pak Chiwon : Ein Beitrag aus Geschichte der kulturrellen Beziehungen zwischen China und Korea Toung pao, Vol.Ⅷ, 1970이다. 앞으로 韓國法史學會와의 관계가 더욱 넓혀지기를 기대한다.

○ 「애산학보」 法史學 特輯

故 李 仁선생을 추모하여 설립된 애산학회에서 발간하는 「애산학보」 제2호가

法史學 특집으로 편집되었다. 同號에는 田 鳳德, 張 庚鶴, 朴 秉濠, 丘 秉朔, 崔鍾庫 등 本學會 會員들의 논문이 수록되어, 1982년도 「法史學 硏究」외에 또 하나의 法史學的 수확이라고 하겠다.

내용 : 구병삭 : 한국 고대·중세의 상급계층과 하급계층의 법리
박병호 : 조선시대의 왕과 법
장경학 : 실학의 법사상
최종고 : 한말과 일제하 「법학협회」의 활동
전봉덕 : 일제의 사법권 강탈과정의 연구

○ 崔鍾庫교수「法思想史」출간

본 학회 강사 崔鍾庫교수(서울法大)는 지난 4월 20일「法思想史」(博英社, 1983)를 출간하였다.